

학술논문에서의 한국어 문법용어 영어 대역어 사용 양상*

안주호 · 정영국**

(순천향대학교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Ahn, Joo-hoh & Jeong, Young-kuk. 2012. A Study on English Equivalents of Korean Grammatical Terms -Based on the Terms Used in Research Pape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1). 229-251. This paper aims to do a quantitative survey of the use of English equivalents of grammatical terms of the Korean language in research papers published since 2000. For this study 226 papers dealing with the Korean language 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 were selected from the database of KISS (Korean Information Sharing Service) to glean English equivalents of Korean grammatical terms. These equivalents were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found in 9 KFL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or abroad for the comparison of the terms. The analysis of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terms 'ida', 'pre-noun', 'particle', and 'suffix'.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most frequently used English equivalents of these grammatical terms in research papers to compare them with the terms used in Korean textbooks to find out frequently used grammatical terms from both resourc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andard English equivalents of Korean grammatical terms need to be selected from a comprehensive survey of current research findings, including research papers and textbooks.

주제어(Key Words): 영어대역어(English equivalent), 한국어 문법용어(Korean Grammatical Terms), 한국어 정보공유 서비스(Korean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ISS), 이다(*ida*), 관형사(pre-noun), 조사(particle), 어미(ending)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0-327-B00589)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 안주호: 제1 저자, 정영국: 교신 저자

1. 문제 제기

한국어교재에서 영어로 된 설명은 초급 학습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시해 준다. 해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를 접하는 학습자라면 한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는 대부분의 언어가 갖는 보편적 성격도, 한국어만이 가지는 개별적인 언어학적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된 설명은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설명언어(Meta-language)로 한국어를 사용한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함으로써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함이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교수할 때, 이렇게 한국어가 설명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이 확대되고 학습자의 수가 늘수록 초급에서는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로 함께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늘기 시작했다. 초급의 학습자는 KSL로서 겪는 한국어 교실 환경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유아처럼 설명언어가 단순하다는 데에 저항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추어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초급에서는 설명언어로 학습자의 모국어나 적어도 영어로 한국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한국어교재에서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자의 모국어로 한국어를 설명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교실환경에서는 설명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할지라도 교재에서는 목표언어인 한국어를 학습자의 모국어로 설명해 놓았다. 교재의 출판 기관에 따라 주요 학습자의 모국어인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모국어로 모두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적어도 영어로 한국어를 번역해 놓은 교재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문법용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왜냐하면 교재에서 사용하는 문법용어는 단지 교재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교실에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자들도 처음 접하는 한국어 문법용어를 모국어로 또는 최소한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고 자신의 한국어에 대한 중간언어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어교육에서는 ‘표준 한국어 교육문법(가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교재에서만 보더라도 동일한 문법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과 다른 용어로 대역되어 있는 실정이다.¹⁾

한국어교육에서 교육문법 용어를 영어로 옮길 경우, 일반언어학, 한국어학, 학습자, 교수자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영어 대역어가 무엇인가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는

1)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준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권재일(2000), 방성원(2002), 민현식(2003), 안주호(2011), 강현화(2011) 등에서 논의되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 ㉠ 대표적 한국어교재에서의 한국어 문법용어 영어 대역어 사용의 계량적 연구
- ㉡ 학술논문에서의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 사용 양상
- ㉢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 ㉣ 한국어 교수자의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 조사
- ㉤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 표준안 설정

본 논문은 이같은 다양한 단계의 연구 중에서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술논문에서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로 무엇이 많이 쓰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어의 문법 범주 중 다른 언어에도 존재하여 범언어학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한국어 고유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법용어가 영어로 어떻게 대역되었는가를 살펴려 한다.²⁾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는 일반 언어적인 성격을 아우르면서, 한국어의 개별적 특성도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의 문법 지식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문법용어는 사용 빈도수가 높고 설명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의 체계성을 설명하는 데 유익해야 하며,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서는 영어의 대역어 역시 정교한 체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문법용어의 선택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언어관이나 문법관을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양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모든 학술논문이 반드시 통일 문법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현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논문 제 2절에서는 기존의 메타언어에 대한 선행 연구와 분석 자료에 대해 알아본다. 제 3절에서는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를 KIS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에 발표된 한국어학 관련 논문 231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품사, 조사, 어미와 관련된 문법용어를 영어로 옮길 경우 문제가 되었던 요소에 대해 한국어교재에서 사용한 문법용어와 비교하여, 학술논문에서 높은 빈도로 대역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제 4절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된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2. 메타언어에 대한 선행연구와 분석자료

현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의 역사는 60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³⁾ 아직 한국어교육에서의

2) 예를 들어 ‘자음(consonant), 모음(vowel), 문장(sentence)’과 같은 용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 학적인 용어이므로, 이들의 대역어를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은 189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한국어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1950년대 이후로 보는데 이것은 연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는 없는 편이다.

2.1 메타언어에 대한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이 본격화 된 이래, 한국어교육에서의 표준문법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육문법을 국어교육의 학교문법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 역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문법이 학교문법과 공통된 관점에서 보고자 한 연구자는 민현식(2003)이 대표적이며, 한국어 교육문법이 고유한 체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는 백봉자(2001)을 비롯하여 이해영(2003), 한송화(2006), 안주호(2009), 강현화(2011) 등이 있다. 한국어 교육문법과 학교문법과의 차이는 학습 대상과 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목표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동일한 언어를 다른 체계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어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의 충분한 논의 하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문법용어의 문제는 이러한 한국어 교육문법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문법을 따를 것인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어교육 초창기에는 주로 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학교문법의 용어를 그대로 대역하기도 하고, 번역가에 따라 재해석하여 대역하기도 해서 한국어교재의 문법용어 역시 매우 혼란스럽다.⁴⁾ 특히 선행연구 중 하나인 안주호(2009)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어교재에서는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나,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법용어를 영어로 옮길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와 교수자의 요구도 반영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문법에서의 문법용어 영어 대역어의 표준안을 찾기 위해, 학술논문에서 사용된 한국어 고유의 문법용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재에서 사용된 대역어와 비교해 보려고 한다.

2.2 분석자료

이 글에서는 학술논문에서의 문법용어는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학술논문에서 핵심어가 ‘한국어-영어’로 병렬된 것을 대상으로 삼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학계에서 사용되

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된 연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 4) 최근 문법용어의 중국어 대역어를 다룬 왕단(2008)은 한국어 교육문법용어의 중국어 대역어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학교문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어 한국어교육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정노(2000), 연재훈(2000)에서 다루어졌으며, 한국어교재에서의 문법용어의 계량적 연구에 대해서는 안주호(2011)에서 다루고 있다.

는 대역어를 찾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에 출간된 논문으로 KISS에서 제공하는 언어학, 한국어학 및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 23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삼았으며,⁵⁾ 이와 국내외에서 출간된 9종의 한국어교재에서의 영어 대역어와 비교해 볼 것이다.⁶⁾

3.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 사용 양상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용어는 일종의 전문어로 사용된 것인데, 전문어(terminology)란 한 지식의 분야나 직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어휘 (term)의 구조화된 집합으로서, 어떤 사물이나 개념의 부류를 명명하는 용어를 이른다(이현주 2010). 여기서는 한국어학 혹은 한국어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해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 언어학적 자원과 비언어적 기호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speech’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 5) 대상 자료는 아래와 같이 KISS에서 ‘핵심어(Key Words)’가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된 231편이다. 그러나 문법용어가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어, 프랑스어 등 연구 대상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목표언어의 문법 체계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는 사용역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어 문법을 다루면서 ‘한국어-영어’의 대역이 되어 있는 학술논문 187편을 자료로 삼았는데, 해당되는 자료는 다음이 학술지와 학회를 표시해둔다.

우리어문연구(우리어문학회), 한국어학(한국어학), 한국어 의미학(한국어의미학회), 어문론총(한국문학언어학회),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우리말연구(우리말학회), 언어과학연구(언어과학회), 발달말(발달말학회), 텍스트언어학(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한국어 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학회), 문법교육(한국문법교육학회), 반교어문연구(반교어문학회), 국어학(국어학회), 진단학보(진단학보), 한국어문학연구(한국어문학연구학회), 국어문학(국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한국언어문학회),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한민족어문학(한민족어문학회), 민족문화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어문논집(민족어문학회)

- 6) 한국어교재 9종의 목록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0/2001). *한국어 초급1,2*. 경희대출판부.[경희대(200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91/2002). *한국어 1*. 고려대출판부.[고려대(199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2008). *재미있는 한국어 1-3*. 교보문고.[고려대(2008)]
 서강대학교 외국어교육원(2000/2003). *서강한국어 1, 2*. 하우. [서강대(2000)]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1995/2000). *한국어 1, 2*. 문진미디어. [서울대(199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2/1997). *한국어 1, 2*. 연세대출판부.[연세대(199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 한국어 1, 2*. 연세대출판부.[연세대(2007)]
 한국외국어대학교(1996/2007). *한국어 1, 2*. 한국외대 출판부. [한국외대(1996)]

Sohn, Ho-min 외(2000). *Integrated Korean Advanced Intermediate 1, 2*, University of Hawaii Press. [하와이(2000)]

(1) 가. 말, (일반적으로) 언어

나. a (가산) 담화, 회화 b 말하기, 말인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 c 말하는 능력 d 말투, 말씨 e 소리, (오르간 등의) 음색(音色)

다. a 연설, …사(辭), b (연극에서 한 번에 하는 긴) 대사, c 국어; 방언

라. 스피치 연구[학] (구두 전달·음성 등의 이론·실천 연구)

마. [문법] 화법 direct[indirect] speech 직접[간접] 화법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제공 동아프라임사전 참조>

(1)의 의미 중에서 (가-다)는 일반어이지만, (라-마)는 전문어가 된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는 일종의 전문어로서 자격을 갖춘 것인데, 예를 들어 particle이 ‘조각이나 사물의 일부’를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어이지만, 한국어의 ‘조사’를 이룰 때는 전문어로 본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형태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이다’의 대역어, 관형사의 대역어, 조사의 대역어 및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대역어에 대한 사용실태와 ‘어미’의 대역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⁷⁾

3.1 ‘이다’의 영어 대역어

한국어교재에서는 품사를 설명해 놓은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품사 표준안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국어교육에서 삼는 표준안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한국어교육을 위한 품사를 따로 설정할지에 대한 것인데, 국어교육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국어교육에서의 교육 내용을 정하지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한국어 품사를 학교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의 9품사로 설정하는데, 이를 한국어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한국어교육계에서는 표준적인 품사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교재에서 한국어의 품사 체계를 설명해 놓은 교재는 하와이대 교재(2000)외에는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 개개 한국어교재에서는 문법 설명에서 ‘noun, verb, particle’ 정도의 설명은 있으나, 전체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교재는 없다.⁸⁾

7) 이외에도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음운적 특성, 통사적 특성에 대한 용어는 다른 지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8) 한국어교육에서 표준적인 문법 체계를 보여준다는 국립국어원(2005)에서도 한국어의 품사 체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단지 범주별 특징을 설명하면서, 단어의 특징으로 꼽은 것은 ‘명사, 의존명사, 대명사, 형용사, 접속사, 조사어미, 관형사, 이다. (흥내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국립국어원, 2005: 29-35).

- (2) 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남기심 외 1985: 학교문법)
- 나. 명사(noun), 대명사(pronoun), 수사(numeral), 동사(verb),
형용사(adjective), 관형사(adnominal), 부사(adverb), 감탄사
(exclamation), 조사(particle) (Ihm 외, 2001: 3-4)
- 다. noun, pronoun, numeral, verb, adjective, determiner, adverb,
particle (손호민, 1994: 204)
- 라. noun, pronoun, number, verb, adjective, copula, adverb,
pre-noun, conjunction, particle(하와이 2000-B1-12)

(2가)는 학교문법에서의 품사 분류 체계로서, 현재 국어교육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등의 9품사로 나누었다. (2나)는 영어로 설명된 한국어문법서인데 학교문법과 동일하게 서술하여 ‘명사(noun), 대명사(pronoun), 수사(numeral), 동사(verb), 형용사(adjective), 관형사(adnominal), 부사(adverb), 감탄사(exclamation), 조사(particle)’의 9품사로 나누었다. (2다)는 한국어학의 입문자를 위한 영어로된 전문서인데, 여기에서는 학교문법의 체계와 유사하나,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의 8품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명사는 noun, 대명사는 pronoun, 수사는 numeral, 동사는 verb, 형용사는 adjective, 관형사는 determiner, 부사는 adverb, 조사는 particle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교재 중 유일하게 품사의 체계를 보인 하와이대(2000) 교재에서는 (2라)와 같이 품사를 10개의 품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다’를 copula라고 하여 단일 품사로 보고 있으며,9) ‘접속사’를 conjunction 이라고 하여 독립된 품사의 하나로 보았다.

인구어의 기사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어에는 ‘이다’인데, 이것은 독자적으로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명사 뒤에 붙어 ‘명사+이다’ 형태로 서술어가 된다. 국어교육에서 ‘서술격 조사’라 불리는 ‘이다’는 한국어교재에서는 단순 대치형인 ‘to be’ 등의 대체형으로 옮기거나, copula라고 설명하고 있다.10) 그러나 경희대(2000)에서는 특이하게 ‘이다’를 descriptive

9) 하와이대 교재에서는 ‘(a special subclass of adjectives, denoting equation, identification, or definition): e.g., *ita* 이다 ‘to be’, *anita* 아니다 ‘to not-be’(하와이 2000-B1-11)’로 설명하고 있다.

10) 다음과 같은 예문이 있다.

- 가. -이다 to be (copula) (고려대 1991-1-50)
- 나. 입니까/입니다 to be (서울대 1995-1-39)
- 라. 이다 is a descriptive particle meaning "to be."(경희대 2000-초급1-154)
- 마. -예요/-이에요: to be(am, is, are) (서강대 2000, 2003-1-27)
- 바. ‘이다(to be)’ is to state the fact. (한국외대 2007-1-21)
- 사. -이에요 is a sentence-ender (고려대 2008-1-34)

particle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한국어교재에서는 ‘이다’의 품사에 대한 논란을 접어 두고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형태와 사용,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표 1. ‘이다’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ita	1(16.7)
ida	5(83.3)

학술논문에서 ‘이다’와 관련한 논문 12편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영어 대역어는 <표 1>과 같은데, ‘이다’는 학술논문에서는 영어 대역어를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는 한국어의 ‘이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관형사의 영어 대역어

관형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의 성격과 성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 (2)에서 보듯이 학자마다 대역어가 제각각이다. Ihm 외(2001)에서는 adnominal, 손호민(1994)에서는 determiner, 그리고 하와이대 교재에서는 pre-noun으로 번역되어 있다. 관형사의 기능이 명사 앞에서 명사의 성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 한국어교재 중 하나인 하와이대 교재에서는 관형사를 pre-noun으로 옮기고 있다.¹¹⁾

관형사는 다른 언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학술논문에서는 <표 2>와 같이 대역하고 있다.

표 2. 관형사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pre-noun, prenoun	12(70.5)
determiner	4(23.6)
adnoun	1(5.9)

아. Copulas (a special subclass of adjectives, denoting equation, identification, or definition) (하와이 2000-B1-12)

11) 또한 하와이대 교재에서는 관형사에 대해 ‘occur only before a noun, and include demonstratives and expressions of quality and quantity): e.g., *i* 이 ‘this’, *ku* 그 ‘that (near you or the subject of discussion)’, *chō* 저 ‘that over there’, *ōuū* 어느 ‘which (one)’, *musūn* ‘what kind of’, *myōt* 몇 ‘how many’ (하와이 2000-B1-12)’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술논문에서는 관형사를 **pre-noun, prenoun**으로 옮긴 것이 가장 많고, **determiner**로 번역되기도 하고, **adnoun**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관형사의 기능이 명사 앞에서 명사의 성격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므로, 위치에 의거하여 **pre-noun**이라고 한 것이 가장 많다. 이외에도 **determiner**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한국어 조사 중 보조사를 뜻할 경우에도 사용해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3.3 조사의 영어 대역어

조사는 국어문법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로 나눈다. 초창기의 한국어교재에서는 문법에 대한 전문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어, **subject particle, object particle, locative particle, possessive particle** 등의 용어나 **subject case marker**나 **honorific subject case marker, adverbial case particle** 등의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

학술논문에서는 조사에 대해 다양한 영어 대역어가 등장한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학자마다 달리 사용하는 개성이 있는 한국어 문법용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법용어를 찾기 위함하므로, ‘격어미’ 등과 같이 지나치게 특정 학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용어는 제외하려 한다.

- (3) 가. 격조사(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인용격조사, 서술격조사, 호격조사)
 - 나. 보조사(특수조사)
 - 다. 접속조사 : -와/과 (남기심 외 1985)
- (4) 가. Case particles (subject particle, object particle, complement particle, adnominal particle, adverbial particles, vocative particles)
 - 나. Connective particles
 - 다. Auxiliary particles (Ihm 외, 2001: 143-144)
- (5) 가. Case particles: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dative, goal, locative-static, locative-dynamic, source, ablative, instrument, capacity, comitative, connective, comparative, equative, vocative
 - 나. Conjunctive particles
 - 다. Delimiters: topic-contrast, inclusion, limitation, toleration 등 (Sohn, 1994: 213-215)

학교문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남기심 외(1985)에서는 조사를 (3)과 같이 나눈다. Ihm 외(2001)에서는 (4)와 같은 분류 방식을 선택하며 이것의 영어 대역어를 위와 같이 설정해

놓고 있으며, (5)에서는 Sohn(1994)의 한국어의 조사 체계를 보여준다. 조사는 인구어나 다른 언어에는 없는 요소로서 조사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한다.

먼저 한국어교재에서 보인 조사의 대역어에 대해 살펴보면,¹²⁾ 조사를 **particle** 또는 **marker**라는 용어로 옮기고 있다. 표지(標識)의 뜻으로 **marker**라고 표기하기도 하지만, **marker**는 여러 가지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어미나 접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학술논문에서는 상위 개념으로서 조사를 영어로 대역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particle	33(39.7)
marker	21(25.3)
postposition, postpositional word	22(26.5)
Josa, josa	3(3.6)
nominal particles	1(1.2)
ending	2(2.4)
syntactic nominal affix	1(1.2)

상위 개념어로서 조사는 <표 3>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사의 대역어로는 **particle**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표지라는 뜻의 **marker**이다. 또한 영어의 전치사와 비교하여 쓴 **postposition** 20회, **postpositional word**라는 용어도 2회나 쓰였으며, 조사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추어 쓴 **Josa, josa**라는 표기도 3회나 보인다. 이외에도 명사 뒤에 붙는 성질을 나타낸 **nominal particle**이나, **syntactic nominal affix**란 표기도 보이며, **ending**이라는 표기도 2회나 나타나 조사의 대역어가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marker**는 표지(標識)라는 의미로서 조사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어미나 다른 복합형태소의 경우에도 사용되므로 그 사용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조사를 **postposition**이라고 하면, 한국어에서 후치사를 인정하는 일부의 연구자에게는 후치사

12)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가. -이/가 subject particle (고려대 1991-1-17)
- 나. -이/-가 This case particle (연세대 1992-1-17)
- 다. Subjective Particle 이/가 (경희대 2000-초급1-154)
- 라. Locative Particle 에 (경희대 2000-초급1-156)
- 마. The subject marker ‘-이/가’ (서강대 2000-1-47)
- 바. N이/가 ‘-이/가’ is the subject marker (한국외대 2007-1-25)

(예를 들면, -에 따라, -에 대한, -에 의한 등)를 뜻하는 것으로 여겨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를 **nominal particle**이라고 한 것은 명사 뒤에 후행한다는 성질을 나타내 주고 있으나, 명사 뒤에 붙는 것은 모두 조사로 보일 수 있으며, ‘**ending**’이라고 한 것은 한국어의 어미와 혼동되는 것이며, ‘**syntactic nominal affix**’라고 한 것 역시 명사 뒤에 결합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느낌을 주므로 혼동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후치사, 첨사를 설정하여 후치사는 ‘**postposition**’, 첨사는 ‘**particle**’이라고 대역하기도 하고, 격조사 등 모든 문법적 표지를 ‘**mark**’라고 하거나, 무표지를 ‘**no mark**’라고 하여, 한국어 조사를 다양하게 대역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논문에서 ‘조사의 의미’는 ‘**meaning of postposition**’으로 대역을 하고, ‘조사의 실현’은 ‘**realization of particle**’로 표기하는 등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3.3.1 격조사

격조사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데, [각주 13]을 보면 한국어교재에서는 격조사를 **case particle**이라는 구체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소유격 조사’를 각각 **subject case marker, object case particle, possessive case partic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서강대(2000)와 한국외대(2007) 교재에서는 조사를 ‘**marker**’라고 하였다. 이러한 한국어교재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조사 {-에서}를 한 쪽에서는 **adverbial case particle**로 기술했으나, 같은 교재의 다른 부분에서는 **locative particle**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adverbial case particle**은 통사론적 측면에서의 용어이고 **locative particle**은 의미적 층위의 용어이므로,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학술논문에서는 격조사에 대해 <표 4>와 같이 대역하고 있다.

표 4. 격조사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case marker	13(65)
case particle	5(25)
Postpositional Particle	1(5)
case endings of Korean Language	1(5)

조사의 대역어로는 **particle**이 가장 많았으나, 격조사는 **case marker**가 13회, **case particle**이 5회로 **case marker**가 훨씬 많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격조사를 **postpositional particle**이라고 대역하거나, ‘**case endings of Korean language**’라고 대역하기도 하였다.¹³⁾ 그런데 주격조사의 대역어만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3) 이외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격조사를 ‘격표지’라고 부르고 ‘**case marker**’로 대역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

표 5. 주격조사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nominative case marker	1(12.5)
Nominative case particle	1(12.5)
subject(ive) case marker	4(50)
Subject Case Particles	1(12.5)
Subjective particle	1(12.5)

주격조사는 <표 5>와 같이 ‘subject(ive) case marker’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의 대역어들이 1회씩의 빈도를 보인다.

- (6) 가. 처격조사, locative case marker, 1회
 처격조사, postposition of Locative case, 1회
 나. 보격조사, complement case particle, 1회
 다. 호격조사, vocative postposition, 1회
 라. 서술격조사, predicative particle, 1회
 마. 관형격 조사, genitive particle 2회
 사. 목적격 조사, object case markers, 1회
 아. 여격조사, postposition of dative case, 1회

개별적인 격조사는 (6)과 같이 나타나는데, 격조사에서는 particle이라는 용어보다 case marker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3.3.2 보조사

보조사는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로서, auxiliary particle로 대역된다. 실제로는 의미를 표시하는 조사로 옮겨졌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은/는}을 topic particle이나 contrast particle로 설명하기도 하고, {-도}나, {-은/-는}을 particle이라고만 대역하기도 했다. 그런데 서강대(2000) 교재에서는 {-은/는, -도}를 marker로 옮기고 있어 격조사와 설명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외대(2007) 교재에서는 {-은/는, -도}를 definitive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조사를 어떤 층위로 번역해야 할지는 한국어 교육문법 기술에 중요한 점 중의 하나인데,¹⁴⁾ 학술논문에서는 보조사(특수조사)를 다음과 같이 대역하고 있다.

¹⁴⁾ 우는 한국어 문법용어 자체를 ‘격표지’로 이른 경우라서, 빈도수 산정에서는 제외하였다.
 14)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가. -은/는 is a topic particle, The contrast particle -은/는 (고려대 1991-1-52)
 나. -은/-는 This particle designates the topic or theme of a sentence, (연세대 1992-1-47)

표 6. 보조사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한정조사, determiner	2(18.2)
보조사 auxiliary particle	2(18.2)
보조사, 특수조사, delimiter	3(27.3)
특수조사, non-case marker	1(9)
보조사, special particle	1(9)
보조사, auxiliary postposition	2(18.2)

보조사는 학술논문에서 위와 같이 대역되었는데, **auxiliary particle** 외에도 격조사와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non-case marker**로 대역되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special particle**로 대역되기도 했으나, 빈도수로는 **delimiter**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3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와/과, -하고} 등 동등한 지위를 갖는 요소를 연결하는 것으로 한국어교재에서는 접속조사 {-와/과} 등을 단순히 **particle**이라고 하기도 하고, **conjunctive particle**이라고 하거나 **combining particle**이라고 한 교재도 있으며 **marker**라고 하기도 한다.¹⁵⁾ 그런데 학술논문에서 접속조사는 **connective**와 같이 1회만이 보인다. 접속조사를 **connective**라고 대역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기능상으로는 적절하지만 연결어미를 대부분 **connective ending**이라고 대역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이다.

3.4 어미의 영어 대역어

한국어에서 ‘어미’라는 범주가 인구어나 다른 언어에는 없는 문법 요소이므로 학습자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다. 어미를 영어로 옮길 경우, **ending, ender, 또는 marker** 등의 용어

-
- 다. -까지 This auxiliary particle (연세대 1992-1-119)
 - 라. Particle (Topic) 은/는 (경희대 2000-초급1-155)
 - 마. 은 topic particle (서울대 1995-1-40)
 - 바. Marker -은/는 (서강대 2000-1-76)
 - 사. ‘-도’ is one of the definitives which means ‘also’. (한국외대 2007-1-38)
- 15)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가. -와/과 ‘and’ is a conjunctive particle (고려대 1991-1-39)
 - 나. -하고 This particle (연세대 1992-1-47)
 - 다. Combining Particle (경희대 2000-초급1-158)
 - 라. The marker ‘하고’ (서강대 2000-2-75)
 - 마. The particle 하고, like ‘and’ in English, (하와이 2000-B1-120)

가 사용되는데, 이 장에서는 어미와 관련된 문법용어를 크게 어말어미·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누어 영어 대역어를 살펴보려 한다. 학교문법에서도 어미분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 종속적 연결어미를 부사형 전성어미 안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¹⁶⁾

일반적으로 ‘어미’라는 항목은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법 요소여서, 이것을 적절하게 가리킬 수 있는 용어를 일반 언어학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표지(標識)라는 의미의 marker라는 용어로 옮기기도 한다. 또한 어미는 ending, 어말어미(語末語尾)는 어구 그대로 해석하여 final ending, 그리고 종결어미(終結語尾)는 sentence final ending으로 옮기며, 비종결어미(非終結語尾)는 nonfinal ending이라고 옮긴다. 연결어미는 conjunctive ending으로, 전성어미는 conversion ending으로 옮기며,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는 pre-final ending, 혹은 어말어미가 아니라는 뜻에서 비어말어미라고 하여 non-final ending, non-nominal ending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영어 대역어들은 한국어 문법 설명을 위해 의도적으로 옮긴 것으로 전문용어에 해당된다.

(7) conjugation ending (Ihm 외, 2001: 219-338)

- 가. final ending(종결어미)
- 나. conjunctive ending(연결어미)
- 다. adnominal ending(관형사형 어미)
- 라. nominalizer ending(명사형 어미)

그런데 Ihm 외(2001)에서는 어미를 conjugation ending이라는 명칭하에 final ending(종결어미), conjunctive ending(연결어미), adnominal ending(관형사형 어미), nominalizer ending(명사형 어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어말어미인 {-시-, -았-, -겠-}은 각각 높임법, 시제를 설명하는 항에서, honorific suffix ‘-(으)시-’ (Ihm 외, 2001:200), past tense ending ‘-있(았, 었)’ (Ihm 외, 2001:192), future tense ending ‘-겠, -(으)를 짓/거’ (Ihm 외, 2001: 194)로 설명하였다. 형태론적으로 {-시-, -았-, -겠-}은 모두 어말어미 앞에 선행하는 선어말어미인데, {-시-}의 경우는 suffix라고 하고, {-았-, -겠-}은 ending이라고 한 것은 기술에 일관성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8) Inflectional suffixes (Sohn, 1994: 233)

- 가. Non-terminal suffixes: subject honorific, tense/aspect, modal
- 나. Enders : ① Sentence ender

16) 이외에도 국어교육에서는 서술절과 인용절을 설정해 놓고 있다.

② Embedded-clause ender: nominal ender, complement ender conjunctive ender, relative ender

이에 반해, 한국어학을 영어로 소개하고 있는 Sohn(1994: 233)에서는 inflectional suffix라는 명칭 하에 선어말어미인 {-시-, -았-, -겠-}은 non-terminal suffix라고 하고 하위 기능별로 subject honorific, tense/aspect, modal로 설명했다. 이들을 suffix라고 한 것은 어말어미 앞에 쓰이고 독립적으로 어구(語句)를 종결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종결 어미는 ender라고 하여 종결어미(sentence ender)와 내포절 어미(embedded-clause ender)로 나누고 이를 각각 명사형 어미(nominal ender), 보어형 어미(complement ender), 연결형 어미(conjunctive ender), 관형사형 어미(relative ender)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선어말어미는 suffix라고 하고, 어말어미는 모두 ender라고 한 점, 그리고 연결어미까지도 내포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어교재에서는 각주 (15)처럼 어미를 ending, suffix, infix, form, prefix라는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학술논문에서는 <표 7>과 같이 대역하고 있다.

표 7. 어미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ending	72(80.8)
suffix	11(12.2)
ending form	2(2.4)
form	1(1.1)
eomi	2(2.4)
ender	1(1.1)

학술논문에서 어미는 ending이 72회로 가장 많이 대역되었으며, suffix로는 11회, ending form으로는 2회, form과 ender로는 각각 1회가 사용되었다. 특이한 것은 조사와 같이 어미도 다른 언어에서 대역될 수 없는 고유한 용어이므로 이것을 로마자표기법으로 대역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eomi인데 총 2회가 사용되었다. 어미는 일반적으로 ending으로 일반화되어 대역됨을 알 수 있다.

3.4.1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어미 중 영어 대역어로 논란이 많은 것은 선어말어미이다. 선어말어미는 어미의 한 종류 이기는 하나 {가-시-았-겠-습니다}에서 보는 것처럼 용언의 끝을 맺지 못하는 {-시-, -았-, -겠-} 등을 이르는 것으로 전후의 요소에 어간과 다른 어미가 결합되어야만 하는 문법형태소이다. 이를 학교문법에서는 pre-final ending이라고 대역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재에서는

infix, suffix, form, marker, pre-final ending 등으로 다양하게 대역하고 있다. 한국어의 성격상 infix라는 문법 범주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동일한 형태소를 두고 suffix, infix 등 상반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학습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¹⁷⁾ 또한 suffix, infix 등 역시 보통의 영어 학습자가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대역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며, 구절의 끝에 쓰이지 않는 선어말어미를 ending의 한 종류라고 한다면 학습자들의 이해에 문제가 될 것이다.

표 8. 어말어미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ending	3(42.9)
word final ending, word-final ending	2(28.5)
final ending	2(28.5)

표 9. 선어말어미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ending not terminated	1(8.3)
pre-final ending	4(33.4)
pre-ending	3(25)
pre-sentence suffix	3(25)
past-tense suffix	1(8.3)

이에 비해 학술논문에서는 위에서 보듯이 어말어미를 ‘ending > word final ending, word-final endings’의 순으로 대역하고 있으며, 선어말어미는 ‘pre-final ending > pre-ending 혹은 pre-sentence suffix > endings not terminated’ 등의 순으로 대역하

17)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가. past tense infix -았/었/였- (고려대 1991-1-52)
- 나. -(으)시- This is the honorific suffix (연세대 1992-1-44)
- 다. -겠- This suffix (연세대 1992-1-68)
- 라. -았/-었/-였- These are the past tense-aspect forms (연세대 1992-1-71)
- 마. -았/었- past tense marker (서울대 1995-1-92)
- 바. honorific marker-시- and the past tense marker -었-(서울대 1995-1-103)
- 야. Verb + 겠- Future Tense Pre-final ending. (경희대 2000-초급1-163)
- 자. ‘-(으)시-’ the honorific suffix, (한국외대 2007-1-93)
- 차. 과거(Past Form) ‘-았/었/였-’ is a suffix (한국외대 2007-1-79)
- 카. -(으)시- is a special honorific form (고려대 2008-1- 224)

고 있다. 어말어미를 ending이라고 한 경우 선어말어미는 ending not terminated로 대역하였으며, 어말어미를 final ending이라고 한 경우에는 선어말어미는 pre-final ending으로 대역했다. 이렇게 어말어미(語末語尾)는 ending,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는 pre-final ending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선어말어미를 pre-ending이라고 하거나, pre-sentence suffix라고 대역되기도 하였다.

3.4.2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한국어교재에서 final ending, verb ending, sentence ending, sentence-ender 등으로 불리고 있다. 더 자세히 보면 서울대(1995)교재에서는 비교적 상세히 sentence ending, verb ending, sentence ending marker로 표기한다. 연세대(1992)에서는 종결어미를 sentence final ending 혹은 final ending, final verbal ending으로 표기하고, 몇몇의 경우에는 imperative와 같은 기능을 함께 표기하기도 한다. 또한 연세대(1992) 교재에서는 종결어미를 sentence-final ending이라고 하는데, sentence-final verbal ending, sentence-final question form이라는 용어도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hortatory로 나누기도 한다.¹⁸⁾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학술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10. 종결어미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sentence ending	2회	5(62.5)
ending	1회	
terminative ending	1회	
sentence-final ending	1회	
sentence suffix	1(12.5)	
sentence ender	1(12.4)	
conclusive ending	1(12.5)	

18)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가. -ㅂ니다/습니다 declarative sentence ending (고려대 1991-1-17)
- 나. -ㅂ시오 This imperative final ending (연세대 1992-1-43)
- 다. Verb + 습니다/ㅂ니다 Affirmative Verb Ending (경희대 2000-초급1-155)
- 라. -ㅂ니다/습니다 are sentence endings. (서울대 1995-1-51)
- 마. The sentence ending ‘-예요/-이에요’ (서강대 2000-1-27)
- 바. -이에요 is a sentence-ender (고려대 2008-1-34)
- 사. -아/어/어요 are sentence-endings (고려대 2008-1-51)
- 아. -으십시오/십시오 This final ending (연세대2007-1-136)

종결어미는 위와 같이 ending으로 쓰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suffix 혹은 ender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종결어미를 문자적으로 대역하면 sentence final ending이 옳을 것이나, terminative ending, conclusive ending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종결어미를 conclusive ending이라고 한 곳에서는 비종결어미를 non-conclusive ending으로 대역하기도 하였다.

3.4.3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한국어교재에서는 ending, connective, connective ending, verb suffix, conjunctive ending, connective suffix, connective ending, conditional ending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suffix와 ending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한국어교재에서는 연결어미가 다양한 용어로 대역되고 있는데, 학술논문에서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11. 연결어미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접속법 어미, subjunctive ending	1(5.3)
종속절 연결어미, subordinating connective ending	2(10.5)
연결어미, connective ending	13(68.4)
연결어미, conjunctive suffix	2(10.5)
연결어미, conjunctive ending	1(5.3)

학술논문을 통해서 본다면 연결어미는 connective ending으로 가장 많이 대역되고 있다.

19) 다음과 같은 예문이 연결어미를 설명한 것이다.

- 가. -고 'and' is the conjunctive ending. (고려대 1991-1-103)
- 나. -는데 is suffix (고려대 1991-1-138)
- 다. Connective suffix -아/어서 has two expressions. (고려대 1991-1-153)
- 라. -고 This conjunctive ending (연세대 1992-1-96)
- 마. Verb + 고 It is an ending (경희대 2001-초급2-175)
- 바. -고 is a connective that links sentences. (서울대 1995-1-78)
- 아. The connective '-지만' (서강대 2000-2-117)
- 자. '-지만' is a connective (한국외대 2007-1-107)
- 차. -으니까/니까 This connective ending (연세대 2007-1-246)

3.4.4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등이 존재한다. 한국어교재에서는 고려대(1991)에서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과 {-는}은 noun modifier ending으로 기술한 반면, {-(-으)ㄹ}은 imperfect tense adnominal ending으로 기술하고 있고, 서울대(1995)에서는 {-는, -ㄴ/은, -ㄹ/을}을 모두 noun modifier라고 하여 기능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서울대(1995)에서는 noun modifier suffix라고 했지만 서울대(2000)에서는 suffix를 생략하고 noun modifier라고 했다. 연세대(1992)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modifier ending이라고 했으며, 연세대(2007)에서는 adnominal ending으로 칭하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소를 두고 modifier ending, modifier, suffix 등으로 불러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미인지 접미사인지 매우 혼돈스러울 수 있다.²¹⁾ 학술논문에서도 관형사형 어미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불리는데 국어교육에서도 관형절, 관형사절이 혼용된다.

표 12. 관형(사)형 어미

대역어	빈도(%)
adnominal ending form	2(13.3)
adnominal ending	5(33.3)
pre-noun ending	3(20.0)
adnominal suffix	2(13.3)
prenoun form	1(6.7)
determiner ending	2(13.3)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 특히 다양한 대역어가 나오는 것은 한국어에서 관형사의 기능이 다른 언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 등 체언을 수식해 주는 것이 관형어의

20) 가. -(으)ㄴ/는 noun modifier ending (고려대 1991-1-163)
 나. 자는, 자, 는, modifier ending (연세대 한국어 1992-1-122)
 다. -는 is a noun modifier (서울대 1995-1-183)
 라. Action Verb + 는 Noun This modifier (경희대 2001-초급2-180)
 마. -(으)ㄴ/는 : Noun modifier, (서강대 2000-2-31)
 바. AVst는 N ‘-는’ is a suffix (한국외대 2007-1-129)
 사. adnominal ending ‘-은, -는, -을’ (연세대 2007-1-212)

21) 이외에도 내포절은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사절 adverbial clause, 명사절 nominal clause 1회, 인용절 quotative clause 1회, 원인절 cause clause 1회, 조건절 conditional clause 1회, 명사절 noun clause 1회, 명사절 nominal clause 1회, 주절 subject clause 1회, 서술절 predicate clause 1회, 목적절 object clause 1회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기능이므로, 체언을 수식하는 절은 관형절 혹은 관형사절이 되는 것이다. 관형(사)절에 대해서도 ‘adnominal clause 6회, determiner clause 1회, definite clause 1회, determiner clause 1회, attribute clause 1회’로 나타나서, 관형(사)절을 어떻게 대역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어교육에서도 ‘관형사형(절 혹은 어미)’와 ‘관형형(절 혹은 어미)’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의 영어 대역어 역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사용 빈도 면에서는 ‘adnominal ending > pre-noun ending > adnominal suffix 혹은 adnominal ending forms > determiner ending > prenoun form’ 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어교재에서 modifier라고 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 외에도 전성어미 중 부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는 한국어교재에서 adverbial ending이나 nominal ending, 혹은 suffix로 대역되었다.²²⁾

표 13. 부사형·명사형 어미의 대역어

대역어	빈도(%)
부사형 어미, adverbial (clausal) ending	6(85)
부사형 어미, adverbial suffix	1(15)
명사형 어미, nominalizational ending	1(50)
명사형 어미, nominalizer suffix	1(50)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표준 한국어 교육문법’을 설정하고,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로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한국어학 관련 학술논문에서 사용된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의 사용 실태와 선호 양상을 한국어교재에서의 양상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는 일반 언어적인 성격을 아우르면서, 한국어의 개별적 특성도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의 배경 문법지식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문법용어는 사용 빈도수가 높고 설명력이 있으며, 한국어의 체계성을 설명하는 데 유의해야 하며,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서는 이의 대역어 역시 이러한 특성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품사, 조사, 어미와 관련된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를 한국어학 관련 학술논문 231편 중 187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살폈는데, 논의된 바는 다음과 같다.

22) 한국어교재에서 설명된 부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는 다음과 같다.

가. -게 adverbial ending (고려대 1991-1-103)

나. 공부하기, 공부하, 기 nominal ending (연세대 한국어 1992-1-122)

다. AVst기(가) 쉽다/AVst기(가) 어렵다 ‘-기’ is the suffix which makes action verbs noun. (한국외대 2007-1-160)

첫째,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는 일종의 전문어로서 자격을 갖춘 것인데, 예를 들어 *particle*이 ‘조각이나 사물의 일부’를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어이지만, 한국어의 ‘조사’를 이룰 때에는 전문어로 본다. 둘째, ‘이다’는 학술논문에서는 영어 대역어를 로마자표기법으로 ‘*ida* 혹은 *ita*’로 표기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한국어의 ‘이다’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형사는 학술논문에서 *pre-noun*, *prenoun* 형이 가장 많고, *determiner*로 번역되기도 하고, *adnoun*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넷째, 조사의 대역어는 *particle*이 가장 많으며, 표지라는 뜻의 *marker*와 *postposi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보조사는 빈도수로 *delimiters*가 가장 높았으며, 접속조사는 *connective particl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한국어교육에서는 어미 체계가 통일적이고 일관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미’라는 범주가 인구어나 다른 언어에는 없는 문법요소이므로 학습자에게는 매우 생소하다. 어미를 영어로 옮길 경우, *ending*, *ender*, 또는 *marker*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어미는 일반적으로 *ending*으로 일반화되어 대역되었다. 어말어미는 *final ending*으로 대역되고,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의 앞에 붙는다는 형태적 특성으로 *pre-final end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종결어미는 *sentence final ending*, 연결어미는 *connective ending*, 전성어미 중 관형사형 어미는 *pre-noun ending*, 부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는 *adverb ending*이나 *nominal ending* 등으로 대역되었다.

이와 같이 이 글에서는 학술논문을 통해서 형태론 관련 한국어 문법용어의 영어 대역어에 대한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한국어 교육문법의 문법용어 영어 대역어 표준안’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학술논문에서의 사용 양상만을 살펴본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한국어 교재에서의 사용 양상, 학습자와 교수자의 요구 분석을 마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 한국어 교육문법’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을 것이다, -기 때문에, -는 바람에, -고 싶어 하다} 등과 같은 복합 형식에 대해서도 *ending*, *suffix*, *form*, *pattern*, *expression*, *construction*, *marker*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상위 개념어와 하위 개념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자 입장에서 본 효율적인 영어 대역어에 대한 문제도 검토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들은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강현화. (2011).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과 전망. *언어사실과 관점* 12, 5-42.
 김재욱. (2007).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체계 분석. *한민족어문학* 51, 44-70.

- 남기삼·고영근. (1985/1993).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민현식. (2003).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교육*, 14(2), 107-141.
- 방성원. (2002). 한국어 교육용 문법용어의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 13(1), 107-125.
- 백봉자. (1999/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백봉자.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피동/사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2(2), 416-445.
- 안주호. (2009). 한국어교재에서 나타난 명사 관련 문법 형태의 영어 설명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59, 49-74.
- 안주호. (2011). 한국어 교육문법에서의 용언 설명에 대한 양상 연구. *한글*, 292, 130-159.
- 연재훈. (2000). 한국의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 *국어교육연구*, 7, 133-157.
- 왕 단. (2008). 한국어 교육용 문법용어의 중국어 표준화 연구. *한글*, 282, 277-316.
- 이관규. (2010).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성격과 내용 체계. *문법교육*, 12, 29-56.
- 이병규. (2008). 국어과의 문법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징 비교연구. *이중언어학*, 38, 398-417.
- 이정노. (2000). 한국의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 :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국어교육연구*, 7, 99-132.
- 이현주. (2010). 문어 학습사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84, 789-826.
- 이혜영. (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 112, 73-94.
- 한송화.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17(3), 357-379.
- 홍윤기. (2006). 메타언어(Meta-language)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 *이중언어학*, 32, 381-408.
- Borg, S. (1999). The use of grammatical terminology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A qualitative study of teacher's practices and cognitions. *Applied Linguistics*, 20(1), 95-126.
- Ihm, H. B., Hong, K. P., & Chang, C. I. (2001/2003).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Yonsei University Press.
- Martin, S. E.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Rutland, Vermont & Tokyo: Charles E. Tuttle Company, Inc.
- Mohammed, A. M. (1996). Informal pedagogical grammar.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4(4), 284-91.
- Scrivener, J. (2003). *Teaching grammar*. Oxford: OUP.
- Sohn, H. M. (1994). *Kore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Thornbury, S. (1999). *How to teach grammar*. Harlow: Longman.

안주호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email: anjh1772@hanmail.net
전화: 041-530-3063

정영국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IGS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email: young@igse.ac.kr
Tel: 02-6477-5110

Received on November 7,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February 9, 2012

Accepted on February 11, 2012